



#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을 울려라

인공지능, 물리, 화학, 생물... 과학이라면 눈을 반짝이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가족 참여형 골든벨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 북구가 공동 주관하는 '2022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행사가 10월 22일 열린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과 부모가 한팀으로 참여해 미래기술 과학상식에 대한 퀴즈를 푸는 가족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지난 행사와 다르게 국립광주과학관 야외 필로티에서 현장대회로 운영된다.

골든벨 문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과 함께 인공지능을 포함한 미래과학기술분야를 바탕으로 출제되며 교과과정 및 참가자 수준 등을 고려해 고르게 출제될 예정이다. 문제 일부는

국립광주과학관, 10월 22일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분야

초등4~6학년 부모와 2인1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최종 선정된 모든 참가자에게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2050 탄소제로시' 특별전 관람권과 주차권, 어린이 과학관 입장권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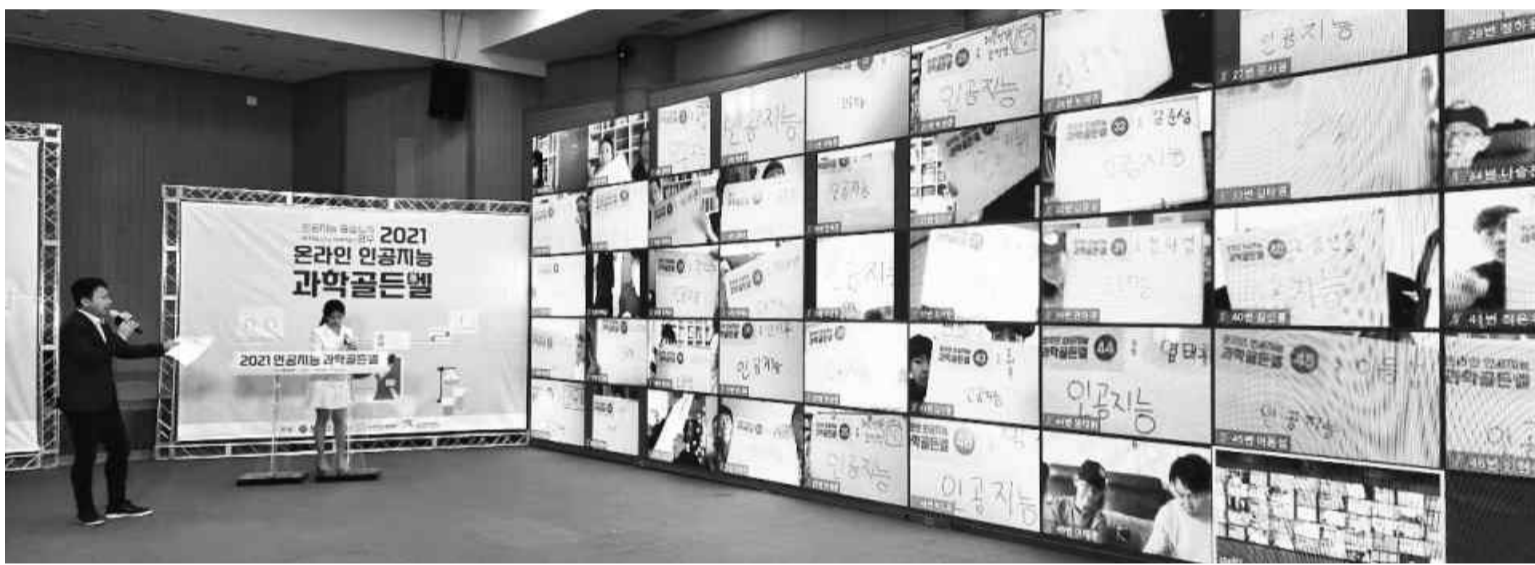
광주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생과 부모 2인1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한다. 접수는 내달 2일까지 이메일(event@gns.or.kr)

로 진행되며 신청 양식은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상은 골든벨 1팀은 광주광역시장상, 실버벨 2팀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상, 브론즈벨 3팀은 국립광주과학관장상이 주어지며, 행사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감쪽퀴즈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국립광주과학관 전태호 관장직무대리는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북구청과 함께 인공지능 과학골든벨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행사가 과학관 야외에서 개최되는 만큼 대외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지난해 개최된 제2회 인공지능골든벨 당시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 KT·한국농어촌공사,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 협약 체결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란 증가하는 재생에너지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인센티브' 제도를 말한다. 제도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을 보다 세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자가 하루 전 발전량을 예측해 전력거래소에 신고하면 전력거래소는 일정 오차범위 내에 드는 예측치에 대해 추가 정산금을 지급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KT와의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예측 값 생성을 통해 최적의 수익성

을 확보해 농업인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예측형 집합전력자원 규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 42지구 61MW를 우선 구성하고 신규로 준공되는 발전소도 순차적으로 예측제도에 참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박찬희 그린에너지처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 참여를 통해 출력 변동성이 심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높여 국가 전력계통 운영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예측 정산금에 따른 수익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재투자해 영농편의 도모를 통해 지속적인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KT 전남전북광역본부 공공고객영업부 강길원 부장(왼쪽),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정책부 박승표 부장(오른쪽)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T AI 리조트&호텔, 신안에서 만나요



### 야놀자클라우드와 협업... '씨원아일랜드'에 스마트 객실관리시스템

KT 전남전북광역본부(본부장 지정용 전무)는 전남 신안 자은도에 오픈한 라마다프라자&자은도(이하 씨원아일랜드)에 KT AI 리조트&호텔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AI 구축은 클라우드 기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분야 국내 기업 야놀자클라우드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KT의 AI 음성인식 기술을 야놀자클라우드의 IoT 솔루션인 와이플러스 GRMS(Guest Room Management System)와 연계해 객실 내 조명, 온도, 가전기기 등 투숙 환경을 모바일과 음성만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 <사진>

또 'KT 기가지니 호텔' 단말을 통해 음성만으로 객실 조명과 TV, 냉난방 조절 등 객실 제어와 어메니티 및 컨시어지 요청, 객실과 호텔간 내선통화 기능이 가능하다.

한편 KT는 AI 리조트&호텔 구축뿐 아니라 스마트 객실관리 시스템 적용 호텔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KT 전남법인과객담당 임경준 단장은 "투숙객과 리조트&호텔 직원 등에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KT AI 리조트&호텔 구축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가 종료됨에 따라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며, 천혜자연환경을 갖춘 전남 다도해 지역에 신축되는 리조트&호텔에 KT AI서비스를 확산하겠다"며 다양한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메신저는 카카오톡, 포털은 네이버

### 8월 앱 사용량

지난달 모바일 이용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메신저 앱은 카카오톡, 포털 앱은 네이버인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아이엑스의 모바일 인덱스는 8월 국내 양대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앱 사용자 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두 업체는 비슷한 기능의 모바일 앱을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별로 메신저 앱에서는 카카오톡 사용자수가 4천319만6천403명으로, 네이버의 라인(164만6천544명)보다 26배 이상 많았다.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사용일 수가 26.74일로 집계돼 이 앱의 이용자들은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의 1인당 월평균 사용 시간은 12.28시간이었다. 카카오톡은 또 송금·결제 앱에서도 사용자 수가 압도적이었다. 카카오페이 앱의 월 사용자 수는 359만6천306명으로, 네이버페이(70만7천319명)보다 5배 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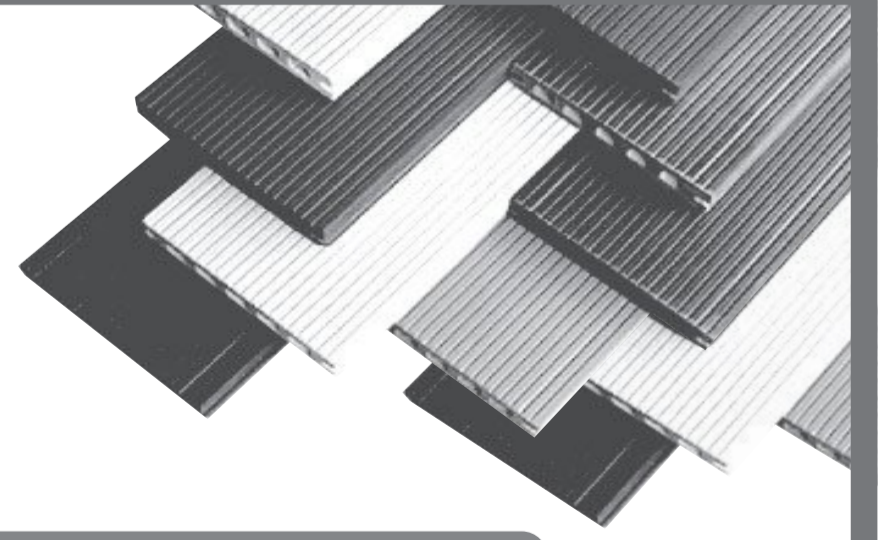
반면 포털과 웹툰·웹소설, 지도·내비게이션 분야에서는 네이버의 앱을 사용한 사람이 더 많았다.



포털 앱의 경우 네이버(4천15만1천90명)의 월 이용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음(844만8천342명)보다 약 5배 많은 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